제38회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회

국립중앙박물관·한국목간학회 공동학술대회

신출토 문자자료의 향연

2023. 2. 7.(화)
13:00~18:00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

木簡學會 한국목간학회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일정

13:30~13:40	인사말	이성시(한국목간학회장)
13:40~14:15	평양 오야리 고분군 출토 칠기와 동경 명문 소개	이태희(국립중앙박물관)
14:15~15:30	부여 동남리 49-2번지 신출토 목간 소개	고상혁(울산문화재연구원)
15:30~16:00	신년휘호 및 휴식	연천 이종암
16:00~17:20	광개토왕릉비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17:20~17:45	한국목간학회 2023년 정기총회	

목차

평양 오야리 고분군 출토 칠기와 동경 명문 소개 5
이태희(국립중앙박물관)

부여 동남리 49-2번지 신출토 목간 소개 19
고상혁(울산문화재연구원)

광개토왕릉비의 비면 현황과 비문 판독 35
여호규(한국외국어대학교)

평양 오야리 고분군 출토 칠기와 동경 명문 소개

이태희(국립중앙박물관)

평양 오야리 고분군 출토 칠기와 동경 명문 소개

이태희(국립중앙박물관)

목차

1. 들어가며
2. 오야리 무덤군
3. 오야리 출토 문자자료
4. 나오며

1. 들어가며

국립중앙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발굴·수집한 자료를 정리하여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금세기 초반에 시작하여 2013년부터 박물관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여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DB, 유리건판 고해상 이미지 파일을 공개하였으며 40여 권의 보고서를 출간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시선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조사 자료 전반을 공개·공유하고 박물관은 물론 학계 일반과 함께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재조명하는 본 사업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라왕릉의 경우, 재발굴 조사를 병행하여 무덤의 정확한 규모와 축조방식, 주변의 부가시설 등 일제강점기 조사사업에서는 밝히지 못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라왕릉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1]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적의 재조사는 물론 접근조차 어려운 북한 지역의 유적 및 출토품 연구는 명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평안남도, 황해도 일대의 낙랑 유적 발굴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가 주력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출토품이 일본, 북한으로 이산된 데다 유적의 보존 현황도 분명치 않아 조사 연구에 많은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2002년 평양 정백리 8·13호분을 시작으로 2018년 평양 석암리 9호분, 2021년 평양 오야리18~21·25호분-유구편, 그리고 지난해 18~21·25호분-유물편을 발간하였다. 또한 후속 자료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문자자료를 새로 확인하여 추가하기도 했다.[2]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이번에 발간한『평양 오야리18~21·25호분-유물편』에 수록된 것들이다.[3] 모두 일제강점기 조사 보고를 통해 기공개된 내용이나 발굴 이후 9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만큼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조사 성과를 보완하고 향후의 과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1) 양성혁,「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발굴자료를 중심으로』(국립중앙박물관·한국고고학회, 2022), p.8.
2) 최정아·이태희,「평양 석암리 9호분 노기에서 발견된 묵서」,『고고학지』27(2021), p.205~216.
3) 본 발표문의 유적 개괄, 유물의 현상 기술 등은 모두 보고서의 담당자였던 최정아 학예연구사가 작성한 것을 그대로 원용, 정리한 것이다.

2. 오야리 무덤군

오야리 무덤군은 일제강점기 행정단위로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梧野里에 있다. 대동강의 남안으로 북안에 평양부가, 그리고 그 중간에 양각도, 매암도 등이 있다. 리의 동쪽으로는 낙동강의 지류인 무진천戊辰川이 흐른다. 1938년 평양 시구 확장 계획에 따라 오야리를 포함하여 대동강면 전체가 평양부로 편입되었으며 해방 이후 북한의 행정 단위 조정으로 현재는 평양특별시 낙랑구역 정오동에 속한다.

오야리는 낙랑군의 군치로 비정되는 낙랑토성의 동쪽 지역으로 일찍부터 낙랑 무덤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1913년 10월 대동강면 오야리 한성광업회사漢城鑛業會社 발전소 부지 내 굴뚝 기초공사 도중 목곽묘 1기가 노출되었다. 이 무덤은 오야리에서 발견된 첫 무덤으로 오야리1~25호 무덤과 구분하여 “오야동고분”이라고 부른다.[4] 1925년 오야리 남동쪽에서 연와토煙瓦土 채취 과정에서 무덤 수 기와 유물이 확인되었다.(오야리 5~17호) 이듬해 노모리 겐(野守健)은 위 무덤을 포함하여 오야리 일대를 조사하고 총 17기를 확인, 분포도를 작성했다.[5]

1930년 11월 오야동 무덤 남동쪽 인근에서 미국 영화 제작사 콘프로덕션 사택 기초 공사 중 다시 낙랑 무덤이 발견되었다. 해당 무덤은 발견 직후 신고되지 않고 곽재와 관재가 제거되었으며 유물이 반출되었다. 이후 평양부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부장품을 수습하는 한편 총독부에 보고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선총독부 촉탁 가야모토 카메지로(榧本龜次郎)와 노모리 겐은 동년 12월 실시한 조사에서 파괴된 무덤을 포함하여 총 3기의 무덤(18~20호)을 확인했다. 이듬해 7월에는 콘프로덕션 사택 수도공사 중 1기의 무덤이 추가로 발견되었다.(21호) 노모리 겐, 간다 소죠(神田惣藏)는 해당 무덤을 조사하고 동 무덤의 북쪽과 서남쪽에서 전곽분과 목곽분 1기를 각기 추가로 발견했다.(22~23호) 또 21호 무덤 서쪽에서도 무덤 1기를 찾았지만 일정 관계로 조사하지 못했다.(24호)[6]

1937년에는 오야리 동북부, 5~18호 무덤의 북쪽, 무진천 가까이서 도로공사 채토 작업 중 무덤 1기가 추가로 발견되었다.(25호 무덤) 무덤 발견 이후 훼손 및 부장품 밀반출이 이루어졌던 다른 경우와 달리 발견자 서병걸徐炳杰이 바로 평양부박물관에 신고함으로써 훼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사실을 보고받은 조선총독부는 조선고적연구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다쿠보 신고(田窪眞吾) 등이 조사를 실시했다.[7]

---

4) 朝鮮總督府, 1927,『樂浪郡時代の遺蹟-本文』, 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pp.54~55 참조.
5) 朝鮮總督府, 1927,『樂浪郡時代の遺蹟-本文』, 古蹟調査特別報告第四冊, pp.46~49 참조.
6) 오야리18~21호 무덤의 조사 결과는 다음을 참조. 朝鮮總督府, 1935,『昭和五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平安南道大同郡大同江面梧野里古墳調査報告』
7) 오야리25호 무덤의 조사 결과는 다음을 참조. 朝鮮古蹟研究會, 1938,『昭和十二年度古跡調査報告』

■ 오야리 발견 낙랑 무덤

무덤 번호	지번	직경	높이	조사표 내용	비고
오야동				목곽, 한성광업회사 발전소 굴둑 공사 중 발견(1913년 10월), 평양부 技手 澤田久馬三이 조사 및 유물 수습.	
1	228전	42척	8척	전면 밭(畑), 목곽木槨 온전? 변화 없음	
2	172전 169전 179전	36척	2척(밭부터)	오래 전 도굴? 전곽塼槨 전부 밭	- 목곽묘 10(8) - 전곽묘 7(7) *( )는도굴 피해
3	172전 169전	36척	2척(밭부터	오래 전 도굴? 목곽? 전부 밭	
4	146전 147전	54척	12척(저지에서) 1척(밭에서)	봉토 절반 밭, 목곽 온전? 변화 없음	
5	27전	없음	없음	목곽(1926년 6월 25일경, 연와토煉瓦土 채취로 파괴)	
6	26전	없음	없음	분지墳址 목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7	24전	없음	없음	분지 전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8	26전	없음	없음	분지 전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9	27전	없음	없음	분지 전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10	27전	없음	없음	분지 전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11	25전 26전	없음	없음	분지 전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12	25전	없음	없음	분지 전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13	24전	없음	없음	분지 전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14	24전	없음	없음	분지 전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15	14전	없음	없음	분지 전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16	13전	없음	없음	분지 전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17	14전	없음	없음	분지 전곽, 연와토 채취로 파괴	
18	129전			콘프로덕션 회사 사택 공사 중 발견, 노모리, 가야모토 조사	
19	140전			쇼와5년(1930) 12월 12일, 콘프로덕션 회사 사택 공사 중 발견, 노모리, 가야모토 조사	
20	138전			쇼와5년(1930) 12월 12일, 콘프로덕션 회사 사택 공사 중 발견, 노모리, 가야모토 조사	
21				목곽	
22				전곽	
23				목곽	
24					
25				전곽, 오야리 채토장에서 서병걸 발견(1937년 4월 12일)	

*대동강면 오야리 고분 조사표[1926,7.13.(원본)/12.13(부기), 조선총독부공문서(F132-002-004)]를 보완

3. 오야리 출토 문자 자료

(1) 18호 무덤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이 무덤은 사택 기초 공사 중에 발견되어 파괴되고 부장품도 도굴되었다. 이후 평양경찰서에서 발견품을 수습했으나 다수가 산일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모리 등 조사에 착수했을 때는 목곽 바닥 만 남아 있고 그 외 부재는 모두 무덤 밖으로 옮겨져 있었다. 『昭和五年度古蹟調査報告第一冊-平安南道大同郡大同江面梧野里古墳調査報告』(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잔존 부분을 근거로 평면은 동서 3.47m(11척 4촌 5분), 남북 3.56m(11척 7촌 5분)이며 내부에 3개의 목관을 안치했다. 문자 자료는 1건이며 출토 위치는 미상이다.

① 칠렴 漆奩 (저부지름 11.0cm / 본관12375)

원통형 칠렴의 파편으로 바닥 및 몸통 일부를 구성했던 부분이다. 목재 바탕 위에 칠을 칠한 목심칠기고 안팎으로 주칠을 했다. 바닥 안쪽 중앙에 흑칠로 쓴 명문이 있다. 인문과 같이 방형 구획을 하고 선으로 글자 외곽을 표현한 듯 하나 글자 판독은 물론 상하도 확정할 수 없었다. 보고서에서도 "내면 중앙에 흑칠로 문자를 썼는데 상부는 결실되어 읽을 수 없다."고 하였다.

(2) 19호 무덤

18호 무덤 도로 건너 편에 있다.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조사 시점으로부터 20년 전까지는 봉토가 있었고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고 한다. 벽돌로 외곽을 쌓고 내부에 목곽을 설치한 이중곽 구조다. 평면은 동서 11척 5촌 9분, 남북 10척 2촌이며 내부에 벽을 설치하여 동서 2실로 구획하고 제1~3목관은 내곽의 안에, 그리고 제4개 목관은 내곽의 바깥에 안치했다.

② 두씨작명마각부칠안 杜氏作銘馬脚附漆案 (길이 45.5cm, 너비 70.0cm / 고적28499, 본관12604)

여러 파편으로 흩어져 있었으나 형태의 전모를 추정할 수 있다. 형태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가장 큰 파편은 내곽 안 제3목관 아래 북쪽 끝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제1목관 위 뚜껑 위에서도 동일한 제품으로 판단되는 잔편이 발견되었다. 가장 큰 파편은 안案의 판재로 뒷면에 명문이 있다. 명문은 주칠로 기록하였으며 내용은 "杜□□作周布牢堅"다. 일부 글자가 결락되어 있지만 제1목관 위에서 발견된 잔편에도 동일한 서체로 쓴 "杜氏作周□"가 있어 전문을 파악할 수 있다.

杜氏作周布牢堅

보고서는 "杜氏"는 제작자의 성, "주포"는 "널리 펼치다(周ねく布く)" 즉 넓게 천하에 이르다는 뜻, 그리고 "牢堅"는 내구성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杜氏는 청동거울 명문에서도 볼 수 있다.[8] '周布'는 일반적으로 '둘라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周'

8) 漢代鏡銘集錄: 1952: B-761.規矩鏡 57 F (外) 杜氏作竟四夷服多賀新家人民息胡虜殄殘天下復風雨時節五穀熟長保二親受大福傳吉后世子孫力官位高 / (內)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陝西西安西郊賀家村 第1號墓 出土(陝西49)]
漢代鏡銘集錄: 1965: B-772.龍虎鏡 60漢 F (外) 遺杜氏造珍奇鏡兮世出渺微名工所刻划兮練五解之英

는 주밀하다(密)고 했고 '布'는 모시풀로 짠 직물(枲織)이라고 했는데, '布'는 전하여 설치, 포설의 뜻도 있다. 따라서 짜임새있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고, 이 경우 뒤의 '牢堅'과도 병렬을 이룬다. 대동강면 3호분(정백리 3호분)에서도 "杜氏作□" 명문이 있는 칠기가 확인된 바 있다.

③ 범평명칠완 范平銘漆盌 (지름 16.0cm, 높이 6.5cm / 본관12610)

심각하게 파손되었지만 남아있는 부분으로 완盌의 파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는 완을 목심칠기로 파악했으나 이번 조사 결과, 일부 부분에는 천을 바르고 칠한 것이 확인되었다. 목심에 바로 칠을 한 것이다. 명문은 그릇 바닥에 있다. 두 줄의 명문이 있는데, 하나는 온전하며 다른 하나는 일부가 결손되었다. 결손되었으나 상단이 동일하여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해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范平牢作」范平牢作"

보고서는 '范'자를 '笵'자로 보았으며 "笵平"은 제작자의 이름, '牢'는 "견뢰堅牢"와 같은 의미로 보았다. 설문에서 范은 "풀이다. 초에 속하고 범이라고 소리낸다(艸也. 从艸, 氾聲)"고 했고 笵은 "법이다. 죽에 속하고 범이라고 소리낸다(法也. 从竹, 氾聲)"고 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예서에서 '++'와 '竹'은 구분이 어려우며 '范', '笵', '範'은 통용자다. 보고서는 범평을 인명(제작자)으로 보고 '牢'는 '堅牢'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비록 후대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이지만 안휘安徽 마안산시馬鞍山市 동오東吳 주연묘周然墓에서 발견된 칠반에 바닥에 "蜀郡作牢"란 명문이 있으며[9], 이밖에 청동거울 명문 가운데서도 '(造)作牢', '作牢大吉' 등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④ 칠편 漆片 (잔존길이 7.6cm / 본관12654)

목심저피칠기의 단편으로 원래의 모습(기형)은 알 수 없으며, 명문도 일부분에 불과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보고서는 " "라고 세 글자로 보았다. 그러나 현재 상태나 건판사진(건판32577) 모두 가운데 글자만 명확하다. 상단의 글자는 '造'의 일부로 추정된다. 중간의 글자는 미상이다. 하단의 글자는 일제강점기 보고서에서 '大'로 추정했으나 현재 상단만 남아있어 단언할 수 없다. " "는 용기의 명칭으로 추정된다.

⑤ 반원방격대신수경半円方格帶四神獸鏡 (지름 18.6cm / 본관12627)

제3목관 아래 북쪽 끝, 두씨작명마각부칠안 위에서 복숭아씨, 밤, 칠배 등과 함께 발견되었다. 칠기편과 함께 있어 칠렴 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구형의 뉴를 중심으로 유절중호문좌를 돌렸다. 주문대에는 4개의 소유를 사방에 두고 그 사이에 좌대위의 선인仙人과 선인을 둘러싼 신수神獸 등을 배치했다. 명문은 주문대 바깥쪽 반원방격대의 방격에 있다. 방격은 모두 14개로 내부를 십자로 구획하여 각각 4자씩 넣었다. "吾作明竟(오작명경)"부터 시계방향으로 읽으면 아래와 같다.

華□而無極兮辟邪配天祿奇守并未出兮三烏□□□□□得所欲吏人服之曾祇祿大吉利[浙江37]

9) 安徽省文物考古研究所等, 「安徽马鞍山东吴朱然墓发掘简报」, 『文物』1988-3, pp.1~15,

吾作明竟(鏡)」[幽]湅三商」 周(彫)刻冊祉」 配像萬彊」 天禽四守」 銜持維剛」 大吉其師」 命長服者」 敬奉賢良」 曾年益壽」 富貴昇始」[壽]如東王」 公西王母」 子孫番昌」

*[ ] 안의 글자는 마멸, 【 】안의 글자는 뜻글자 / 두꺼운 글자는 보고서 판독문 보완

일제강점기 미판독 글자의 경우, 현재 禽, 銜, 剛, 其로 읽을 수 있으며, '父'는 '公'으로 바로잡았다. '商'은 최근 '岡'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형으로 볼 때 본 경우는 '岡'으로 보기 어렵다. '冊祉'는 '典祀' 또는 '冊祀'로 판독한 경우도 있다. '典'과 '冊'은 판단이 어려우나 일단 보고서를 따랐다. '祀'는 巳의 상단이 연결된 것과 다른 만큼 이 역시 보고서의 판독을 따랐다. 글자를 보완하여 명문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내가 만든 밝은 거울, 검게 불려 세 번을 다스리고 조각하여 복(길상어구)을 새겼다. 만천하와 짝하고 하늘의 날짐승이 사방을 지키니 단단함과 대길大吉을 품에 지녔도다. 선인은 목숨을 늘리니 (이를) 품은 자는 현량을 공경하며 받들라. 해마다 수명을 더하고 부귀가 막 드높아질 것이니 동왕공과 서왕모처럼 오래오래 살고 자손이 번창하리라.[10]

명문 가운데 기년 정보는 없으나 보고서는 중국 및 일본 내 자료와 비교하여 후한後漢 건안建安14년(209)부터 서진西晉 태초太初4년(391) 사이의 양식에 속하는 것으로 청동거울 및 무덤의 편년을 후한 시대로 보았다.

(3) 제20호분

19호분과 같은 구릉에 있다. 봉토는 남아있지 않았으나 조사 당시까지 도굴의 흔적은 없었다. 길이 3m, 너비 1m 내외의 작은 목곽 3개가 나란히 놓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목곽마다 목관 1기를 목곽 남벽에 접해 안치하고 목관과 북벽 사이 빈 공간에 부장품을 넣었다. 목관 내에서는 피장자가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구슬, 반지 등의 장신구가 주로 출토되었다.

⑥ 칠편 (잔존길이 1.8cm / 본관12654)

가운데 목곽(제2곽)에서 발견되었다. 뒤에 직물의 흔적이 있어 목심저피제로 보인다. 단편에 불과해 본래 어떤 용기였는지 추정하기 어렵다. 주칠 바탕에 흑칠로 명문을 적었다.

孫牢

보고서는 '孫'은 제작자의 성이며 '牢'은 '견뢰堅牢'를 기원하는 의미로 파악했다.

---

10) 임기환은 朝鮮古文化綜覽3(p.11)의 판독을 저본으로 아래와 같이 번역했다.
"五作明鏡 幽湅三尙 周刻典祉 配像萬疆 天禽四守 銜持維▨ 大吉興師 命長服者 敬奉賢亮 增年延壽 富貴昇始 壽如東王父西王母 子孫繁昌"(내가 맑은 거울을 만드니 강하게 단련하고 복을 비는 말을 새기고 만강함의 형상을 배치하니 천금(天禽)이 사방을 지키고 크게 길함이 일어나도다. 이를 지니는 사람은 현량을 받들고 해마다 수(壽)를 더하고 부귀가 커가니 수명은 동왕부(東王父), 서왕모(西王母)와 같이 장수하고 자손은 번창하리라.)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금석문 검색 오작명경사신경(吾作明鏡四神鏡)

⑦ 칠배漆杯 (잔존길이 3cm / 본관12664)

제3곽에서는 총 9점의 이배가 발견되었다. 모두 목심 칠기로 안팎 주칠한 것과 안은 주칠, 밖은 흑칠한 것으로 구분된다. 안팎 주칠한 것 파면 1점에 명문이 있다. 장방형 곽을 구획하고 그 안에 명문을 넣었으나 많은 부분 지워져 판독이 쉽지 않다.

⑧ 칠렴漆奩 잔편

제3곽 칠장방분 아래에서 원형 칠렴 1점이 출토되었다고 하나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높이 9.5cm의 신부身部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한다. 명문은 분리된 상태로 출토된 바닥 중앙 있다. 흑칠로 장방형의 곽을 구획하고 안에 글자를 넣었다.

李氏作

글자의 폭은 같으나 높이가 서로 상이한데, '李'를 1로 보면 '氏'와 '作'은 각기 1/3, 2/3으로 마치 2자를 쓴 것처럼 보인다. 보고서는 '李氏'가 이 제작자의 성인지 소유자의 성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제작자의 성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려울 듯 싶다. 이씨는 제작자 집단일 것이며 후한 청동거울 명문에서도 "李氏作"을 찾아볼 수 있다.

(4) 21호분

콘프로덕션 사택 지역 내로 19호분 서북쪽에 있다. 봉토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제거되었다. 목곽 구조로 평면은 동서 약 10척, 남북 약 10척 4촌이며 내부에 목관 3개를 나란히 안치했다. 조사 당시 목관은 이미 인부들에 의해 밖으로 옮겨진 상태였으며 양 옆의 목관은 부식이 심해 바닥 일부만 남아있었다. 부장품은 목관과 북곽벽 사이에 부장했으나 도굴 피해를 입어 주요 부장품은 대부분 사라졌다.

⑨ 영평십사년재명칠배永平十四年在銘漆杯 (잔존길이 17.8cm, 바닥크기 9.0×4.6cm / 본관12680)

동쪽 목관과 목곽 북벽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다른 칠기에 눌린 채 두 조각으로 분리된 상태였으나 후에 접합했다. 안쪽은 주칠, 바깥 쪽은 흑칠을 했다. 명문은 바닥 가장 자리를 따라 예서隸書로 새겼다. 명문 및 역문은 다음과 같다.

永[平十]四[年]. 蜀郡西工造乘輿夾[紵容一升]八合杯. 素工壽. 𩰫(髹)工封. 汜(漆)工常. 汧工長. 造工原. 護工掾順. 長周. 守丞惟, 掾羽, 令史方主.

*[ ] 안의 글자는 일부 자획이 탈락된 글자 / ( ) 안의 글자는 추정 글자

영평14년(71) 촉군 서공에서 제작한 승여협저 용량 1승 8홉 배. 소공 수, 장공 봉, 칠공 상, 월공 장, 조공 원, 호공연 순, 장 주, 수승 유, 연우, 영사 방이 주관.

오야리 출토품 가운데 유일한 기년명 칠기로 발견 이후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11] 명문은 제작

11) 梅原末治, 『支那漢代紀年銘漆器圖說』(京都: 桑名文星堂, 1943), pp.50~51. 우메하라 스에지의 석문

이력으로 “제작연도-제작지-용도-재질-용량-기명-공정 담당자-감독관” 순으로 기록했다. ‘永平(영평)’은 후한 명제(明帝, 재위 57~75) 때 연호로 영평14년은 71년이다. ‘蜀郡(촉군)’은 한대 지방행정 단위인 군 가운데 하나로 오늘날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 및 그 인근 지역이다.[12] ‘西工(서공)’은 촉군 내 관영 수공업 공장이다.[13] ‘乘輿승여’는 황실 소용을 의미한다. ‘俠紵협저’는 협저제, 즉 천을 바른 뒤 칠을 했다는 것이다. ‘一升八合(일승팔합)’은 1승 8홉으로 해당 용기의 용량을 표시한 것이다. 노모리는 ‘一升八’에 의문을 제기했다.[14] ‘一升’은 칠면의 탈락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八’은 확실하다.[15] ‘杯(배)’는 기명이다. 이하 제작자를 공정에 따라 명기했다. ‘素工(소공)’은 바탕이 될 목기을 깍는 장인으로 추정되며 이름은 ‘壽(수)’다. ‘髹工(휴공)’은 목기 위에 생칠을 바르는 작업을 담당하며 이름은 ‘封(봉)’이다. ‘汚工(칠공)’은 칠공漆工으로 칠 작업을 하는 장인이며 이름은 ‘常(상)’이다. ‘汥工(월공)’은 논자에 따라 판독 및 해석에 차이가 있다. 세키노 다다시(關野貞)과 후지타 도요하루(藤田豊八)는 汥工을 조공彫工(조각공)으로 석독하였으나, 나이토 고난(內藤湖南)과 나바 도시사다(那波利貞)는 동공彤工(주칠공)으로 이해했고, 原田淑人은 처음에는 汥=浣으로 판독하고 완공垸工으로 보았으나 후에 조공彫工으로 수정했다.[16] 왕중슈(王仲殊)는 ‘칠기 표면을 깔끔하게 다듬는 작업’으로 이해했고[17], 탕란(唐蘭)은 “洧”로 판독, ‘般’과 같은 뜻으로 표면을 연마해 광택을 내는 작업으로 보았다.[18]

은 다음과 같다. “永平十四年. 蜀郡西工. 造乘輿夾紵容(?)一升八合杯. 素工壽. 汚工封. 髹工常. 汥工長. 造工原. 護工掾順. 長周(?). 守丞惟, 掾羽, 令史方主.” 이번 판독문과 큰 차이는 없으나 汚工과 髹工의 순차가 바뀌어 주의를 요한다.

內田宏美, 「中國漢代紀年銘漆器出土一覽」, 『環日本海研究年報』21(2014.3.), p.78. 우치다 히로미는 우메하라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순차에 착오를 범했다.

白雲翔, 「漢代“蜀郡西工造”的考古學論述」, 『四川文物』(2014-6), p.42.

“永平十四年, 蜀郡西工造, 乘輿夾紵容一升八合杯, 素工壽, 上工封, 髹工常, 洧工長, 造工原, 護工掾順, 長周, 守丞惟, 掾羽, 令史方主.” 바이윈상은 汚工을 上工으로, 汥工을 洧工으로 판독했으나 따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汚을 上으로 보긴 어렵다.

12) 『漢書』 卷28上 地理8上 蜀郡, pp.1598. “蜀郡, 秦置. 有小江入, 并行千九百八十里. 禹貢桓水出蜀山西南, 行羌中, 入南海. 莽曰導江. 屬益州. 戶二十六萬八千二百七十九, 口百二十四萬五千九百二十九. 縣十五：成都, 戶七萬六千二百五十六. 有工官. 郫, 禹貢江沱在西, 東入大江. 繁, 廣都, 莽曰就都亭. 臨邛, 僕千水東至武陽入江, 過郡二, 行五百一十里. 有鐵官、鹽官. 莽曰監邛. 青衣, 禹貢蒙山谿大渡水東南至南安入渻. 江原, 鄲水首受江, 南至武陽入江. 莽曰邛原. 嚴道, 邛來山, 邛水所出, 東入青衣. 有木官. 莽曰嚴治. 緜虒, 玉壘山, 湔水所出, 東南至江陽入江, 過郡三, 行千八百九十里. 旄牛, 鮮水出徼外, 南入若水. 若水亦出徼外, 南至大莋入繩, 過郡二, 行千六百里. 徙, 湔氐道, 禹貢嶓山在西徼外, 江水所出, 東南至江都入海, 過郡七, 行二千六百六十里. 汶江, 渻水出徼外, 南至南安, 東入江, 過郡三, 行三千四十里. 江沱在西南, 東入江. 廣柔, 蠶陵. 莽曰步昌.”

13) 『漢書』 卷72 貢禹傳, p.3069. [漢書音義] “如淳曰 “地理志河內懷・蜀郡成都・廣漢皆有工官. 工官, 主作漆器物者也.”

14) 梅原末治, 『支那漢代紀年銘漆器圖說』(京都: 桑名文星堂, 1943), p.51.

15) 정백리 200호묘 출토 이배에 명문에서 ‘一升八合’의 용례를 볼 수 있다.

16) 關野貞, 「樂浪の漆器」, 『史學雜誌』36-6(1925), p.471.
藤田豊八, 「問題の二語」, 『史學雜誌』37-9(1926), pp.851~853.
內藤虎次郎, 1926, 「樂浪遺蹟出土の漆器銘文」, 『藝文』17-1, pp.76~81.
那波利貞, 1927, 「樂浪出土漆器銘文中の汥工につきて」, 『史學雜誌』38-6, pp.596~597.
최근 훙스(洪石)는 汥을 丹(붉을 단)의 이체자로 보고 나이토, 나바의 의견에 동의했다.
原田淑人, 1926, 「樂浪出土漆器の銘文中に見ゆる工に就て」, 『史學雜誌』37-8, pp.775~778.
原田淑人, 1927, 「再び樂浪出土漆器の銘文中に見ゆる工に就て」, 『史學雜誌』38-6, pp.553~556.
오영찬, ‘낙랑칠기’연구와 식민지주의, 백제연구49(2009), p.98.에서 재인용

17) 王仲殊, 『漢代考古學概說』, 中華書局(1984).

18) 唐蘭, 「長沙馬王堆漢軑侯妻辛追墓出土隨藏遺冊考釋」, 『文史』10(1980).

建武廿一年，蜀郡西工造，乘輿一斛承旋，雕蹲熊足，青碧閔瑰飾，銅承旋徑二尺二寸，銅涂工崇，雕工業，泂工康，造工業造，護工卒史惲，長汜，丞萌，掾巡，令史鄙主.[19]

위는 1970년대 초 허베이 성(河北省) 한단 시(邯鄲市) 장좡챠오 촌(張庄橋村)에서 발견된 2기의 벽돌 무덤 중 1기(M2)에서 출토된 동주준탁반銅酒樽托盤의 명문이다. 여기서 泂工(주공)은 판독에 따른 차이로 涓工과 같다. 이는 금속기의 제조과정에도 涓工이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涓工 외에 彫工도 확인된다. 따라서 涓工을 주칠공이나 조각공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涓工 작업은 칠기와 청동기 모두 마무리 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연마·광택 작업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涓工(월공)의 이름은 '長(장)'이다. '조공(造工)'은 최종 산출물을 검사하는 장인으로 이름은 '원(原)'이다. '護工掾(호공연)'은 군수가 파견한 감독관으로 공정 과정의 감독, 물품의 검수와 명문 작성을 담당한다. 감독관을 먼저 기술한 전한 칠기의 경우, 장과 승 뒤에 위치하였으나[20] 전한말 이후 장인의 바로 뒤로 이동했다. 호공졸사는 군수가 파견한 관리였던 까닭에 장 앞에 두었다는 설[21]과 직접 장인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장인과 감독관을 연결하는 위치로 이동했다는 설[22]이 있다. 다른 곳에서는 호공연 대신 호공졸사(護工卒史)가 나오기도 한다. 뒤로는 공관의 장관인 '長(장)' 이하 관리를 차례로 열거했다. 장의 이름은 '周(주)'다. 차관은 수승守丞으로 이름은 '惟(유)'다. '掾(연)'은 실무관리로 이름은 '羽(우)'다. '令史(영사)'는 문서 및 기록을 담당하는 관리로 이름은 '方(방)'이다. 말미의 主(주)는 이상이 주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의 칠기로 1939년 평양 남교 정백리 200호묘 출토 이배가 있다.

永平十一年，蜀郡西工造，乘輿夾紵量一升八合杯，素工武，髹工戎，上工翕，涓工當，造工大，護工掾封，長豊，丞□，掾羽，令史疆主.

영평11년(68)년 제작한 것으로 오야리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촉군 서공에서 제작한 승여협저칠기다. 관리 중 연掾의 이름이 우羽로 동일하다.

무덤의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 기년명 칠기로 보고서에서도 "이 칠배의 연호명으로 이 고분의 축조 연대의 기준 하나를 얻은 것은 어쨌든 기뻐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했다.

⑩ 칠배漆杯 잔편 (잔존길이 10.2cm 등, 본관12681)

영평십사년재명칠배 아래로 3건의 칠배가 겹쳐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안쪽 바닥에 흑칠로 명문을 썼다.

---

19) 方國錦,「鎏金銅斛」,『文物參考資料』1958-9

20) 연대가 상이한 석암리 병분丙墳 출토 촉군 서공 제작 칠기는 명문 내에서 호공졸사(연)의 위치가 변화되었음을 보여준다.
漆耳杯: "始元二年(BC.85), 蜀西工, 長廣成, 丞何放, 護工卒史勝, 守令史毋夷, 嗇夫索喜, 佐勝, 髹工當, 畫工文造."
漆盤: "永始元年(BC.16), 蜀郡西工造, 乘輿髹泂畫紵黃釦飯盤, 容一斗, 髹工廣, 上工廣, 銅釦黃塗工政, 畫工年, 泂工威, 清工東, 造工林造, 護工卒史安, 長孝, 丞□, 掾譚, 守令史通主."

21) 宋治民,「汉代铭刻所见职官小记」,『考古』1979-5.

22) 佐藤武敏,「中国古代の漆器工業」,『人文研究』9-11(1958), p.1244-1285.

高 ㄷ / 高孝通 / 高孝 ㄷ

보고서는 소유자의 성명으로 추정했다. 정백리 2호분 서관西棺에서 '夫租長印(부조장인)'과 '高常賢印(고상현인)'이 출토된 바 있으며, 낙랑토성지 발견 '樂浪大尹五官掾高春印(낙랑대윤오관연고춘인)', '高翊私人(고후사인)' 등 봉니封泥, '高君(고군)' 명전銘磚 등 자료를 감안할 때, '高孝通'은 칠기의 사용자로 낙랑군의 관리를 배출했던 저성著姓 고씨高氏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렇게 해석한다면 고효통은 무덤의 피장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5) 25호분

오야리 동북부 5~17호 무덤 북쪽으로 평양 남쪽에서 영제교永濟橋를 건너 서쪽으로 빠지는 지선의 도로변에 있다. 전축분으로 남북으로 조금 긴 상자형 주실이 있고 서쪽에 세장한 측실을 두었다. 양자 중간에 북쪽으로 치우쳐 통로가 있다. 주실 중앙에서 남쪽으로 목관을 두었던 흔적이 있는데, 총 4개 중 3개는 서벽에 가깝고 하나는 동벽에 접해 있다. 『昭和十二年度古跡調査報告』에서 다쿠보 신고(田窪眞吾)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는 출토품을 근거로 후한대 비교적 신분이 낮은 집안의 무덤으로 비정했다.

⑪ 반룡경 盤龍鏡 (지름 13.2cm 등, K346)

측실의 중앙에서 출토되었다. 중앙에 반구형의 뉴가 있고 뉴 주위로 원형의 띠를 돌렸다. 거기에 두 마리의 용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며 대칭을 이룬다. 용은 머리에 외뿔이 달려 있고, 몸통은 S자형을 했다. 용과 용 사이에는 구름 무늬를 넣었다. 용 무늬 외곽으로 명문대가 있다. 작은 원형 돌기로 명문의 시작점을 표시했다. 명문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王氏作竟(鏡)眞大巧 上有山人不知老 渴飮玉泉汎(飢)食棗

왕씨가 만들 거울, 대단히 정교하다. 위에 있는 선인(山人)은 늙음을 모르니 목마르면 옥천(의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대추를 먹는다.[23]

왕씨작경王氏作鏡은 전세자료 및 출토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大巧(대교)'를 大好(대호)로 새긴 용례도 있으나 여기서는 좌변이 '工'이 확실함으로 巧가 될 것이다. '山人'은 仙人을 말한다. 불로장생不老長生의 희구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양식의 청동거울에서도 이와 유사한 명문을 볼 수 있다.[24] 왕광묘王光墓 출토 방격규구사신경方格規矩四神鏡에서도 이와 유사한 명

23) 임기환은 朝鮮古文化綜覽3(p.11)의 판독을 저본으로 아래와 같이 번역했다.
"王氏作鏡眞大巧 上有山人不知老 渴飮玉泉飢食棗"(왕씨가 거울을 만드니 진실로 공교하도다. 위로 선인이 있어 늙음을 모르고 옥천에서 물을 마시고 대추로 배를 채우도다.)
아울러 王氏를 王莽으로 보고 新의 제작품으로 추정하였으나 한대 청동거울 가운데 '杜氏作', '李氏作', '蘇氏作', '孟氏作' 등 등이 보이는 만큼 왕씨를 왕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금석문 검색 왕씨작반룡경(王氏作盤龍鏡)

24) 漢代鏡銘集錄: 1556: B-463.尚方鏡 21 東漢早~中 F 外 : 尚方作竟眞大巧上有山人不知老渴飮玉泉飢食棗 浙江杭州1956年杭州西郊古蕩鎮東漢墓清理(考古通訊1957-5)

문을 볼 수 있다.[25]

(6) 전세품

오야리 무덤 다수는 발굴 조사 이전에 도굴 피해를 입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구입품 및 수집품에도 전 오야리 출토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문자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⑫ 연호문경 連弧文鏡 (지름 10.1cm 등, 본관11448)

소장품 등록 카드에 출토지가 "平南(평남) 大同郡(대동군) 船橋面(선교면) 梧野里(오야리)"로 기록되어 있다.[26] 중앙의 시체문柿蒂文 사이로 명문이 한 글자씩 있으나 일부 파손되어 현재는 3자만 남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宜子孫'으로 탈락 글자는 '長'이었음에 분명하다.

⑬ 명대경 銘帶鏡 (지름 9.5cm 등, 본관13092)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 토사채취장에서 발견되었다.[27] 중앙에 반구형의 뉴가 있고, 그 바깥에 8개의 연호문으로 뉴좌를 돌렸다. 양쪽으로 즐치문을 배치한 명문대에는 양각

漢代鏡銘集錄: 1903: B-724.規矩王氏鏡 47 漢莽前後 F 外：王氏作竟 眞大好 上有山人 不者老 渴飮玉泉 飢食棗 浮游天下 敖四海 壽如金石 爲國保 內：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 陝西舊藏 扶風博物館藏歷代銅鏡(文博1988-4)

25) 명문은 다음과 같다. "太山作竟眞大巧, 上有山人不知老, 渴飮玉泉飢食棗, 壽長如此兮"
본 청동거울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 참조.
權五重, 「樂浪 王光墓의 銅鏡」, 『釜大史學』23(1999), pp.102~106.

26) 본건을 포함하여 본관11448~11451(1930년 1월 20일 입수)은 출토지가 "平南 大同郡 船橋面 梧野里"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오야리는 1938년까지 대동강면에 속했으며 이후 대동강면 14개리 모두 평양부로 편입되었다. 선교면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선교리는 무진천을 경계로 오야리 동북쪽에 있었다. 선교리는 평양부 확장 계획에 따라 1929년, 1934년 평양부로 편입되었다. 평양부의 잦은 행정 개편이 탓에 잘못 기록한 것으로 판단된다.(국립중앙박물관, 『평양 오야리18~21·25호분-유물편』(2022), p.277.(각주20) 또, 쇼와12년도 고적조사보고에 따르면 오야리 채토장에서 25호분을 발견했을 때 선교리 주재소에 감시를 의뢰했는데, 선교리 주재소가 오야리까지 함께 관할했던 것으로 보이인다. 그런 점에서 주재소의 관할 범위를 상급 행정단위인 면으로 오인하고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조선총독부 공문서에 따르면 발견자는 神保省三, 朴昌洙 2인이다. 단, 명세서는 "船橋里 梧野里"로 병칭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번호	명칭	점	평가액		수집지명	비고
			단가	합계		
11448	白銅製長宜子孫內行花文鏡	1	15.00	15.00	大同郡 船橋里 梧野里 發見 神保省三·朴昌洙	平安南道
11449	銀製腕輪	3	2.00	6.00		
11450	銀製指輪	1	1.00	1.00		
11451	土製鉢	1	0.50	0.50		
소계		**6**		**22.5**		

27) 『京城日報』 1931년 10월 15일자(4면 9단)에 "平安南道 大同郡 大同面 吳相里의 金貞吉(39)이 이달 5일 부외 梧野里 砂利(토사)採取場에서 樂浪遺物 地面鏡 1면, 화살촉(矢尻) 10개, 銀塊 1개 습득하여 이것을 팔려고 갖고 있던 것을 12일 평양(경찰)서원이 압수했다."는 기사가 있다. 평안남도가 1931년 10월 30일 조선총독부로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이때 수습한 것은 백동명광경 1점, 靑銅有鉤器 11점, 鐵製斧 1점이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1933년 5월 30일 압수품을 각각 20원, 5.5원, 1원 총 26.5원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아유가이 후사노신(鮎貝房之眞), 오다 쇼고(小田省吾),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이 맡았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동년 6월 19일 유실물법 제13조에 의거, 토지 소유자 久野熊次郎에게 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13.25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평안남도에 통지하고 7월 15일 지출결의를 진행했다. 지출결의서에는 久野熊次郎의 주소로 "平安南道 大同郡 大同江面 梧野里 二〇七"이 있는데, 이곳이 발견지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참고: (진열) 『쇼와(昭和) 7~8년도 진열물품 청구서』(D010-021-001-001) / (발견) 『쇼와(昭和) 8년도 발견 매장물 문서철』(B012-022)

의 명문이 있다.

'內而清而以而昭而明而光而夫日而月不'

'夫日'와 '月不'를 제외하고 글자 사이에 '而'를 넣었다. 글자와 글자를 연결하는 '而'를 빼면 '**內清以昭明光夫日月不**'로, **"밝은 빛으로 밝혀 안을 정화하니 해와 달이 (그치지) 않기를"**이란 길상어구다. 각각의 글자를 '而'로 연결한 명문은 거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昭明'이 포함되어 '소명경昭明鏡'이라고도 불린다. 전한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28]

4. 나오며

이상으로 평안남도 대동군 대동강면 오야리 무덤 출토품 중 문자자료를 살펴보았다. 여전히 논란이 여지가 남아있고 일부는 판독을 하지 못했다. 칠기 명문의 경우, 기존 연구가 기년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명, 기명, 길상어구 등을 기록한 짤은 문장은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난 해 노기弩機의 묵서를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고고학적 성과에 대한 폭넓은 정리와 자료 축적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청동거울 명문의 경우, 상투적인 길상어구가 등장하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연구는 번역 작업을 생략했다. 이번 출간한 보고서 및 본 발표에서 무리하게 번역을 시도한 이유는 향후 오류나 부족함을 메워 줄 수 있는 비판과 수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번 간행된 보고서 및 본 발표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오야리 출토 문자 자료의 연구와 활용이 촉진되기를 바라며 멀지 않은 미래에 실지 유적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8) 이와 같은 양식의 소명경은 대부분 전한 말기에 유행했던 것이나 신 또는 후한 초기의 무덤에서도 종종 확인된다. 장쑤 우이 둥양에서 발견된 7기의 무덤 중 7호묘에서 유사한 양식의 소명경(M7:66)이 출토되었다. 지름 10.6cm이며 명문은 "內清以昭明夫象夫日月不泄□"이다. 보고자는 본 청동거울과 도기, 오수전 등의 양식을 검토하고 무덤의 조성 시기를 前漢 만기~新 사이로 비정했다.(南京博物院, 「江蘇盱眙東陽漢墓」, 『考古』 1979-5, pp.412~426.) 또한 광시좡족자치구 류저우시 무덤에서는 총 3매의 소명경이 발견되었다. 각각의 지름은 10.9cm, 10.1cm, 8cm이다. 무덤 내에서는 新이 제작한 화폐인 大泉五十 19매가 발견되었다. 보고자는 타 무덤 출토품과 비교하여 후한 초기 조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柳州市博物館, 「柳州市郊東漢墓」, 『考古』 1985-9, pp.790~792.)

부여 동남리 49-2번지 신출토 목간 소개

고상혁(울산문화재연구원)

부여 동남리 49-2번지 신출토 목간 소개

고상혁(울산문화재연구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출토 정황
Ⅲ. 목간의 소개
Ⅳ. 맺음말

Ⅰ. 머리말

부여 동남리 49-2번지 유적은 LH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계획하면서 (재)울산문화재연구원에 의해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28일에 걸쳐 정밀발굴조사(조사면적:13,088㎡)가 이루어졌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목간은 총 5점으로 백제문화권 문화재 보존·관리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목간의 보존처리를 지원하여, 글자 판독 및 묵서흔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목간은 2022년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었다.

Ⅱ. 출토 정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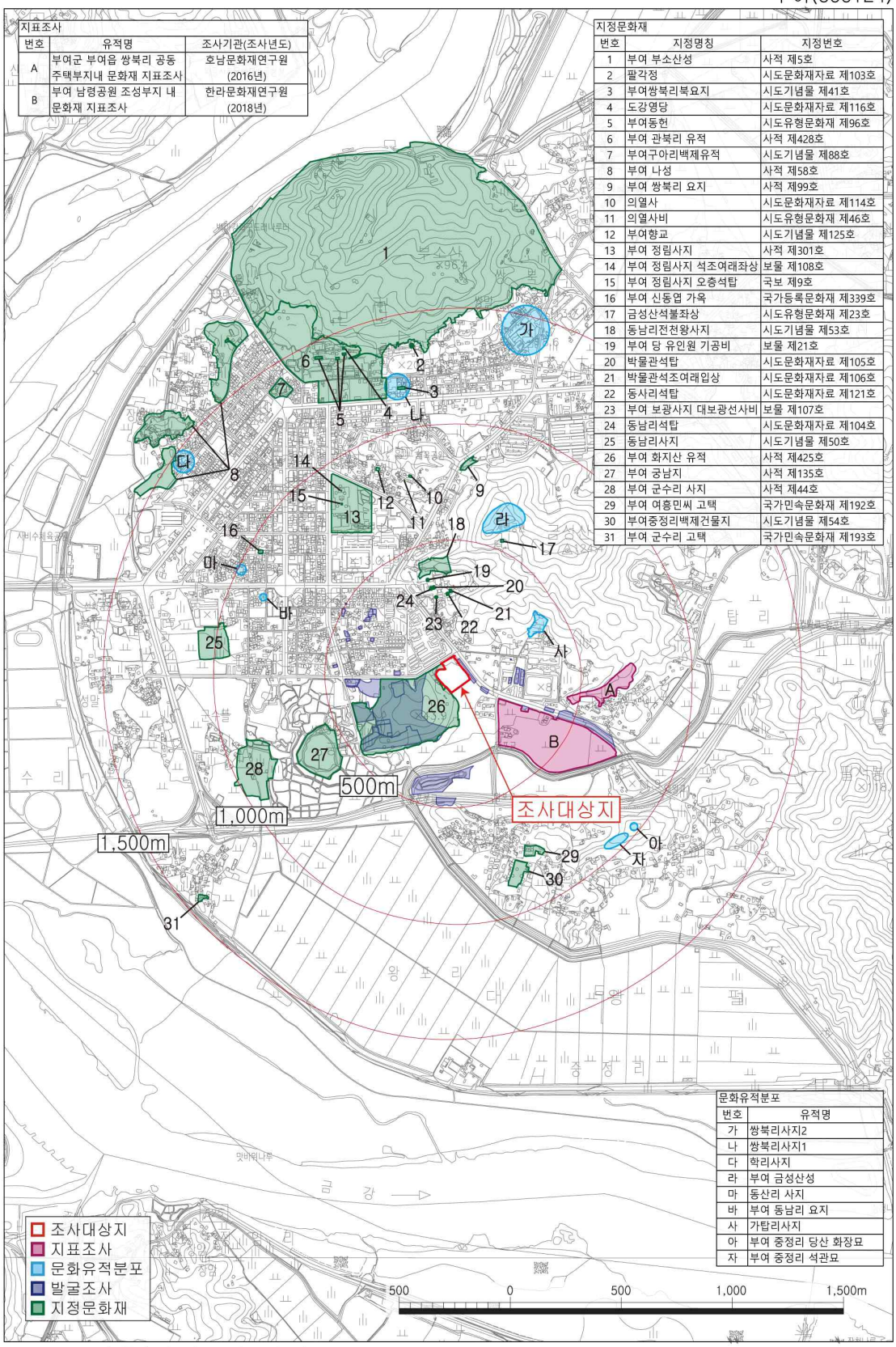
1. 입지와 환경

조사지역이 위치한 동남리는 부여읍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동남리의 지형을 살펴보면, 동쪽에 위치한 금성산(124.3m)에서 서쪽으로 분지하여 형성된 저평한 구릉지가 동.서방향으로 뻗어 있다. 남쪽 일대는 화지산(43.8m)과 궁남지가 자리하며 일부 저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 일대는 구릉 사면부와 백마강 사이에 형성된 충적지와 접하고 있으며, 북쪽은 부소산과 금성산 사이에 형성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동쪽으로 가탑리, 서쪽으로 구교리 및 군수리, 남쪽으로 왕포리, 중정리, 북쪽으로 구아리, 쌍북리와 접하고 있다. 동남리는 대부분의 지대가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다. 백제시대에는 사비군, 통일신라시대에는 부여군, 고려시대에는 공주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부여현 현내면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동산리·마천리·신대리·남산리·학서리 일부와 대방면 탑동 일부를 병합하여 동산과 남산의 이름 따서 동남리라 하였고 부여군에 편입되었다.

유적은 화지산과 금성상 사이의 남북으로 뻗은 곡부에 해당하며, 발굴조사 당시 논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곳은 부소산성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한다는 점과 연접한 부여 가탑리 가탑들 유적 5지점[1]에서 도로와 건물지들이 확인되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유구들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1) (재)금강문화재연구원, 2009,『부여 가탑리 가탑들 유적』.

부여(366124)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2. 층위

시굴조사에서 지형과 지물을 고려하여 총 9개를 설치하였고, 이중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1기의 트렌치를 기준으로 하여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층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3개의 문화층(Ⅳ·Ⅵ·Ⅷ층)을 확인하였다. 토층에 대한 상세 설명은 도면 1과 같다.

Ⅰ층: 최근 복토된 층으로 황갈색 사질점토로 구성.
Ⅱ층: 근·현대 경작층으로 갈색 사질점토로 구성.
Ⅲ층: 회갈색 사질층으로 유물 및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간층.
Ⅳ층: 1문화층으로 갈색 사질점토층이며 도로, 수혈, 구상유구 등이 확인.
Ⅴ층: 회갈색 사질층으로 유물 및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간층.
Ⅵ층: 2문화층으로 갈색사질점토층이며 백제시대 건물지가 확인.
Ⅶ층: 회갈색 사질층으로 유물 및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간층.
Ⅷ층: 3문화층으로 갈색사질점토층이며 백제시대 유물이 포함된 층.
Ⅸ층: 갈색, 흑색 사질점토층으로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비문화층.
Ⅹ층: 흑색 니질 점토층으로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비문화층.

3. 발굴조사

도면 2. 기준 토층(4트렌치)

1) 경과

발굴조사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남북으로 임의의 선을 설정한 후 서쪽을 먼저 조사한 후 동쪽을 조사하였다. 총 4차에 걸쳐 이루어진 전문가검토회의 결과에 의거 서쪽의 Ⅰ·Ⅱ구역은 2문화층 중층과 일부 하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3문화층에 대해서는 2문화층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공간을 설정하여 Pit 조사를 실시하여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유물포함층임을 확인하였다.

동쪽의 Ⅲ·Ⅳ구역은 1문화층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모든 구역에 대한 조사가 완료

된 이후 유적 전면에 고운 모래를 복토하여 미조사 구간을 보존하였다.

2) 조사 내용

(1) 1문화층

1문화층은 상층, 하층으로 구분된다. 상층에서는 4차 도로 1면, 동서도로 1면, 건물지 5동, 수로 1기, 구 10기, 우물 1기, 암거시설 1기, 매납유구 1기, 수혈 5기, 주혈군이 확인되었다. 하층에서는 3차도로 1면이 확인되었다.

① 1문화층 상층

4차 남북도로 : 노상은 모래를 성토하여 쌓은 성토식이다. 노면은 점질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측면 경사면에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모래로 이루어진 노상을 점토로 피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크게 4차에 걸쳐 증·개축이 이루어졌는데 도로의 초축은 2문화층에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 사용은 1문화층까지 이어진다. 도로의 노상 폭은 10~11.5m 정도이고 측구는 1.2~1.5m 정도이다. 도로 상면이 측구보다 높고 상면에는 차륜흔이 확인된다. 남쪽경계 쪽에는 도로와 직교하는 목제 암거시설이 확인되었으며, 이 암거와 연결되는 측구의 일부는 석축하였다.

동서도로 : 굴착식에 해당하며 측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용 중 지속적인 퇴적이 이루어지며 토기 편, 목기 편 외에 다량의 유기물이 혼재되어 있다. 일부에서 차륜 흔이 확인된다. 전체적인 폭은 5m 전후이다. 동서도로 하부에서 2문화층의 건물지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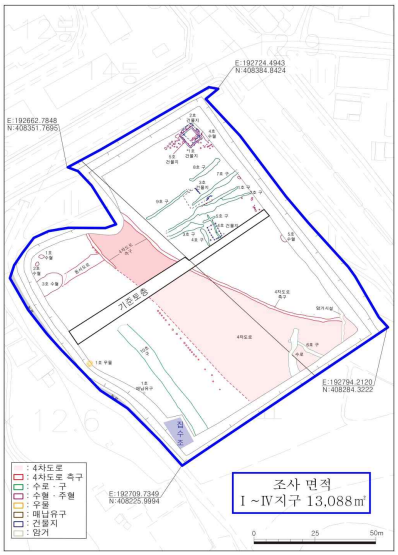
1호 건물지 : 북쪽에서 확인되었다. 벽주건물지이며 2호 건물지에 의해 일부가 파괴되었다. 평면형태는 정방형이다. 건물지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구는 너비 30cm, 깊이 40cm 내외이며 구를 기준으로 건물지 내부 규모는 길이 560cm, 폭 557cm 정도이다. 주혈의 경우 2단 굴착한 것 형태도 확인된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55cm, 깊이 40cm 정도이다. 내부에서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북쪽 주혈 내에서 철부 2점이 출토되었다.

2호 건물지 : 북쪽에서 확인되었다. 1호 건물지에 의해 일부를 파괴하고 축조되었다. 1호 건물지와 달리 방형의 구가 확인되지 않고 장타원형의 수혈이 한 면에 2기씩 배치되어 정방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남동쪽에는 1열의 주혈이 추가되었다. 장타원형의 규모는 길이 160cm, 폭 60cm 정도이다. 건물지 내부 규모는 길이 605cm, 폭 500cm정도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3호 건물지 : 중앙에서 확인되었다. 남쪽에는 'ㄴ'자 형태의 석열이 확인되는데 기단석과 담장으로 추정되며 내부에서 지진구로 추정되는 토기 1점이 확인된다. 토기 내에서 인골이 출토되었고, 동쪽 담장석 주변에서 치아가 확인되었다. 기단석 북쪽에는 남북으로 석열이 형성되어 있는데 부속건물로 추정된다. 일부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형태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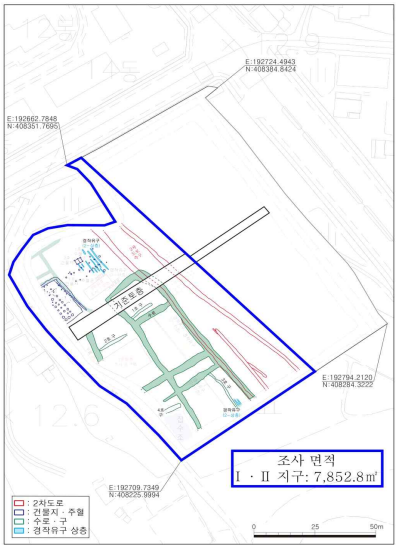
4호 건물지 : **남**쪽에서 확인되었다. 굴립주 건물지이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전체적으로 정면 5칸, 측면 2~4칸으로 확인된다. 규모는 길이 570㎝, 너비 400㎝이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28~45㎝이며 주혈간의 거리는 100~190㎝이다.

5호 건물지 : 북쪽에서 확인되었다. 1호, 2호 건물지에 의해 파괴되어 완전한 형태는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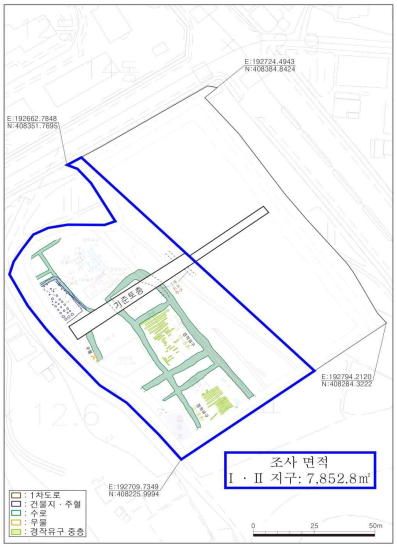


1문화층 하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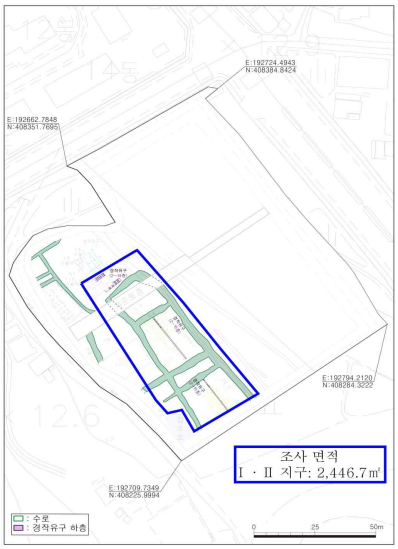
1문화층 하층



2문화층 상층



2문화층 중층



2문화층 하층

3문화층

도면 3. 유구배치도

할 수 없지만 평면형태는 방형으로 추정된다. 북쪽과 남쪽에 소주혈이 등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서쪽은 일부만 잔존한다. 규모는 길이 550㎝, 너비 540㎝이다. 주혈의 규모는 직경 15~20㎝이며 깊이는10~25㎝ 정도이다.

수로 : Ⅳ지구 남쪽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자 형태이며 서쪽 1문화층조사의 수로와 만난다. 규모는 폭 90~180cm, 깊이 15~20cm 정도이다.

구 : 1호 구는 남북도로 서쪽의 도로와 나란하게 확인된다. 폭은 약 4m, 깊이는 7～15cm정도이다. 내부에서 철기편,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2~5·7~10호 구는 동고서저의 지형에 맞게 동-서로 형성되어 있고 남북으로 형성된 것도 확인된다. 바닥에서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고 내부에서 기와편과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6호 구에서는 대호가 파쇄된 형태로 출토되었다.

우물 : 유적 서쪽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치석된 돌을 사용하였다. 뒷면에는 할석과 기와 등으로 채웠고, 붉은색 모래를 주위에 깔았다. 바닥에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부에서 토기와 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암거시설: 암거는 양측에 직경 13~16cm 정도의 말목을 박고 장축방향에 맞추어 횡목을 놓은 형태이다. 내부에는 모래로 채워져 있다. 토기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측구의 폭은 약 0.8～1m 전후이고 노상의 폭은 약 18m 정도이다.

매납유구 : 유적 서남쪽에서 확인되었다. 원형의 수혈을 파고 토기를 도치시켜 매납되었는데 구연부에는 초본류의 흔적이 확인된다.

수혈 : 유적에서 서북쪽 3기, 동쪽 2기가 조사되었고 평면형태는 부정형, 타원형이며 3~5호의 경우 서쪽이 파괴되어 평면형태는 파악할 수 없다. 3호 수혈과 4호 수혈 내부에서 다량의 목기,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주혈군 : 유적의 남서쪽과 북동쪽에서 조사되었다. 남서쪽에서는 남북도로 서쪽 측면에는 도로방향과 나란하게 평면형태 원형의 주혈이 열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북동쪽의 주혈은 평면적으로 부정형의 형태를 보인다.

② 1문화층 하층

3차 남북도로 : 4차 남북도로의 축조 방법과 동일하지만 도로의 폭은 축소된다. 노상의 일부에는 차륜흔이 확인된다. 동쪽 측구 북편에는 3개의 목주를 이용하여 벽을 보강하였다. 측구의 폭은 1.3～1.8m, 노상의 폭은 10.5m 정도이다. 2지구에서는 4차 남북도로와 동일하게 남동방향으로 휘어서 진행하는 도로와 남북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로 구분된다. 토층 조사결과 남동방향으로 휘어지는 도로를 사용하다가 남북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를 증축하였는데, 두 도로의 노상 높이가 동일한 것으로 볼 때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도로는 남서쪽에서 만나 북쪽으로 진행한다. 남동방향 도로의 규격은 노상 폭 9.7m, 측구 폭 0.9～1.5m 정도이다. 남북방향 도로의 규격은 노상 폭 6.6m, 측구 폭 0.9～1.5m이다.

(1) 2문화층

2문화층에서 상층, 중층, 하층으로 구분된다. 상층에서는 2차 도로 1면, 건물지 2동, 수혈 1기, 구 4기, 수로, 경작유구, 주혈군이 조사되었다. 중층에서는 1차 도로 1면, 건물지 1동, 수

로, 우물 1기, 경작유구, 주혈군이 조사되었다. 하층에서는 수로, 경작유구가 조사되었다.

① 2문화층 상층

2차 남북도로 : 3차 남북도로의 방향과 축조기법이 동일하다. 2차 측구는 3차 측구에 의해 파괴되었다. 도로의 노상의 폭은 6.6m이고, 깊이는 20~34cm이다. 측구의 폭은 68~270cm 이다. 남서쪽은 남북방향의 직선적인 도로와 남동방향으로 휘어지는 도로로 구분되는데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동방향 도로 노상의 폭은 7.7m 정도이고, 측구의 폭은 0.85~1.9m 정도이다. 남북방향 도로는 노상의 폭이 7.6m 정도이고, 측구의 폭은 0.4~1.3m 정도이다. 차륜흔의 폭은 180cm 정도이다.

1호 건물지(초석식 건물지) : 건물지는 정면 8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쪽은 초석식(4칸), 북쪽은 목주식(4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대지를 조성한 후 굴착하여 초석과 목주를 설치하였는데, 한 칸은 170~210cm 정도이다. 목주식 건물지는 바닥다짐 정도와 칸의 길이에 따라 2칸씩 용도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남쪽 2칸은 바닥을 모래와 점토로 단단하게 다졌다. 목주식 건물지의 북쪽 2칸은 주기둥을 세우고 사이에 보조기둥을 박은 후 가공한 나무를 적층하는 원리로 쌓아 올린 목벽식이다. 목벽으로 사용된 목제의 길이가 160cm로 동일하며 양쪽 끝에 가공흔이 확인된다. 건물지에서 동쪽으로 340cm 정도의 공간(마당)을 두고 남북으로 길게 작은 목주열이 형성되어 있고 이 외곽으로 구가 설치되었다. 구의 평면형태는 'ㄱ'자 이고 규모는 길이 19.3m, 폭 110cm, 깊이 15~36cm 정도이다. 유물은 토기, 목기, 철검편, 교구 등이 출토되었다.

2호 건물지(굴립주 건물지) : 정면 2칸 측면 1칸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 방향은 동서향이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5~30cm이며 한 칸의 폭은 130~190cm, 깊이는 25~35cm 정도이다. 주혈 단면 조사결과 목주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혈 : 2호 건물지 동쪽에서 확인되는데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규모는 길이 140cm, 폭 120cm 정도이다. 내부에 유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바닥에서 다른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물은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구 : 남서쪽에서 4기가 확인되었다. 3기는 동서방향이며 1기는 남북방향이다. 2호 구는 방향으로 볼 때 우물과 관련된 시설로 판단된다. 4호 구의 내부토는 흑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고 내부에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수로 : 남북도로와 직교하며 남북도로 이전에 형성된 유구이다. 평면형태는 격자상의 형태이다. 규모는 폭 250cm, 깊이 약 80cm 정도이다. 퇴적양상은 모래와 점토가 반복적으로 퇴적되거나 점토 퇴적 후 상부에 모래가 퇴적되었다. 북서쪽의 수로는 유적 내에서 가장 낮은 남서쪽으로 연결되어 남쪽으로 진행된다. 내부에서 토기, 기와, 목간 등이 출토되었다.

경작유구 : 상층 경작유구는 북서쪽 중앙의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 전체적인 방향은 남북방향이며 모래가 자연퇴적된 상태이다. 1차 경작유구의 규모는 고랑의 폭은 25~30cm, 깊이는 5~10cm, 이랑의 폭은 180~220cm 정도로 확인되었다.

주혈군 : 1차 남북도로와 건물지 사이에 위치하며 2열로 이루어져 있고 주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목주의 흔적도 확인된다. 2열의 폭 270cm 정도이며 주혈과 주혈의 간격은 130~250cm 정도이다. 2열의 주혈은 굴립주 건물지로 볼 수 있지만 간격과 열이 맞지 않아 건물지와 관련된 구조물로 판단된다.

② 2문화층 중층

1차 남북도로 : 2차 남북도로에서 약 30㎝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단면에서 확인하였고 평면은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단면에서 볼 때 2차 남북도로와 축조과정은 동일하며 2차 남북도로보다 노면은 2차 남북도로보다 폭이 넓다. 도로의 규모는 폭은 10.1m 정도이고 측구의 폭이 1.8~1.9m 정도이다.

건물지 : 보존처리를 위해 목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하강한 결과 아래에서 초석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볼 때 재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쪽 끝부분에는 성토 후 여러 개의 말목을 박았고 주변으로 목재가 놓여져 있다. 규모는 1차 조사와 동일하다.

수로 : 1호 건물지 앞에 트렌치를 설정한 후 토층조사에서 북서쪽에도 수로가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면형태는 격자상으로 남서쪽 수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지구 서쪽에서도 수로가 추가로 조사되었다. 남북방향이며 북서쪽 1호 건물지 아래로 진행한다. 토층으로 볼 때 자연퇴적된 양상이다. 토층양상은 모래, 점토가 반복 퇴적되거나 점토만 퇴적되는 것으로 볼 때 기존 남서쪽의 수로와 동일하다. 북쪽에서는 목교로 판단되는 시설이 확인되었다. 목교는 수로 내부의 양측에 말목을 박고 그 위에 수로와 평행하게 약 1m 전후의 나무를 올려놓은 형태이다. 수로의 규모는 폭 약 100㎝, 깊이 40~65㎝이며 내부에서 토기편, 목간이 출토되었다.

우물 : 남서쪽에서 확인되었으며 흔적만 잔존한다. 원래 우물의 위치이며 1문화층 단계에 옆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쪽에는 물 저장을 위해 말목을 박은 후 목판을 옆으로 놓은 시설이 확인되었다.

경작유구 : 남서쪽 중앙과 남쪽의 수로 내부공간에서 약 5~15㎝ 정도 하강하여(2문화층 중층) 중층 경작유구가 확인되었다. 중층 경작유구는 동서방향의 고랑과 두둑이 조사되었고 중앙 일부에서는 남북방향도 확인된다. 고랑 내부에는 모래와 점토로 채워져 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유구의 흔적은 미약하다. 중층 경작유구의 규모는 고랑 폭 40~55㎝, 깊이 5~10㎝, 두둑 폭 60~72㎝ 정도이다.

③ 2문화층 하층

경작유구 : 하층 경작유구는 중층 경작유구에서 약 10~20㎝ 정도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고랑 내부에는 밝은 모래로 채워져 있고 북쪽 일부에서 고랑과 두둑이 양호하게 잔존한다. 일부 지역에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규모는 고랑 폭 50~56㎝, 깊이 8~12㎝, 두둑 폭 66~80㎝ 정도이다.

(3) 3문화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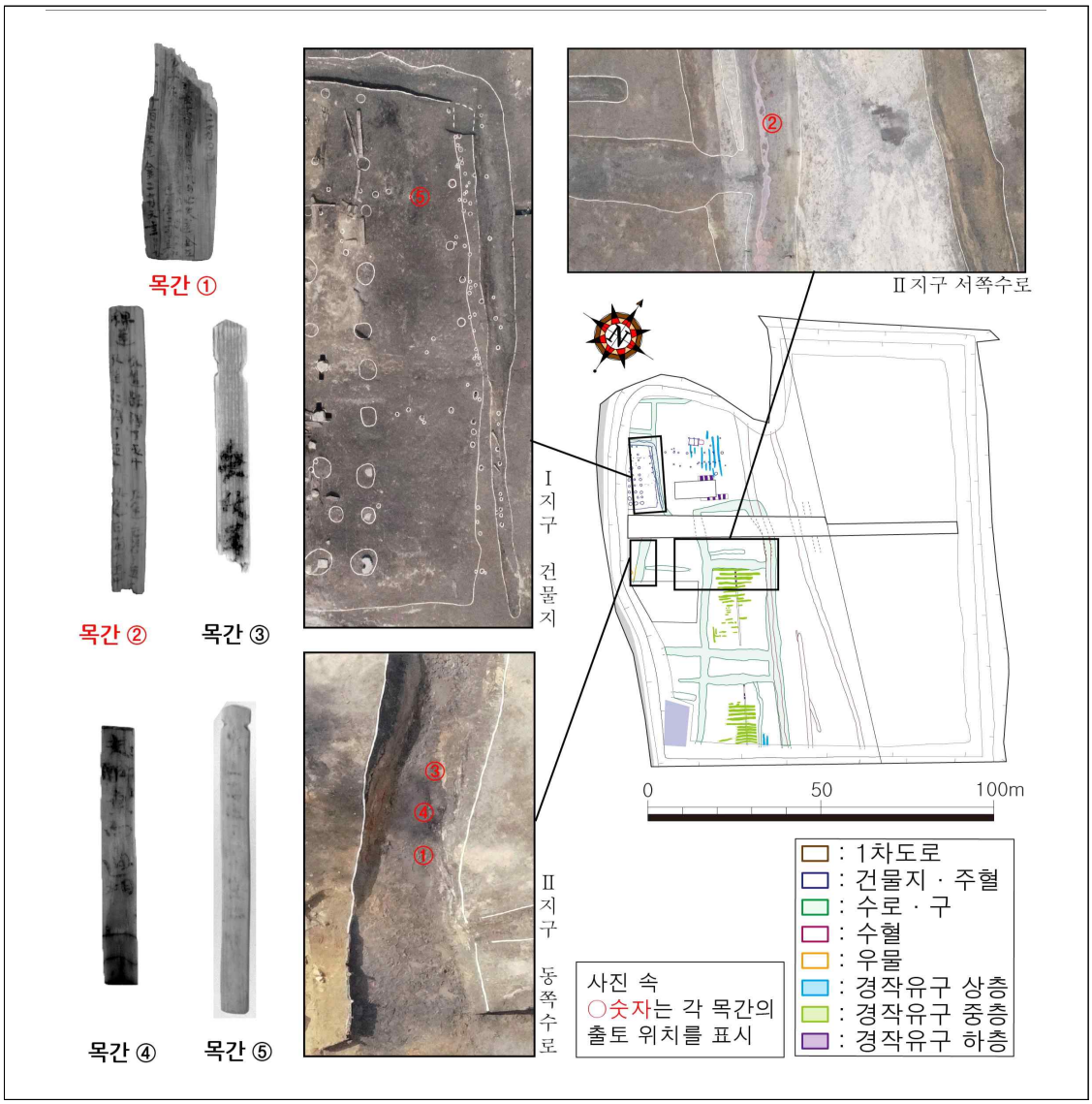
북서쪽의 3문화층은 2문화층 하층 경작유구에서 아래로 약 15~30㎝에서 확인되었다. 동고서저의 지형이며 토양은 흑갈색 사질점토층에 해당된다.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은 토기 잔편만 출토되었다. 일부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에 트렌치를 설정하여 약 50㎝ 정도 아래까지 하강하였다. 유기물이 포함된 흑갈색 점토층이 확인되었는데 이 층은 시굴조사 당시 최하층인 니질점토층(비문화층)에 해당된다.

남서쪽의 3문화층은 서쪽의 화지산 자락의 말단부에 해당한다.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내부토는 흑갈색 사질점토층이다. 일부 지역에서 자연 수로가 확인되지만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유물은 소량의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Ⅲ. 목간의 출토 정황 및 소개

1. 목간 출토 정황

목간은 모두 2문화층에서 출토되었다. 출토된 목간 중 Ⅱ지구 도로와 인접해 있는 수로에서 확인된 1점(2번)을 제외하면 4점 모두 Ⅰ지구 1·2호 건물지와 관련된 유구에서 확인되었다. 이중 1점(5번)은 2호건물지의 마당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건물 동쪽 구와의 사이에서 출토되었으며, 3점은 1호건물지 남쪽 수로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1호 건물지 남쪽 수로는 기준토층으로 인해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평면상 배치 방향을 고려할 때 건물지를 둘러싸고 있는 수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면 4 유적 내 목간 출토 유구

건물지는 최상층과 차상층을 조사한 이후 보존이 결정되어 초축의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최소 3차례 이상 증·개축이 이루어지며 비교적 장시간 존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건

물지와 수로의 평면상 방향을 고려할 때 건물지와 수로의 배치는 처음부터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증·개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건물지를 둘러싸고 있던 수로는 점차 매몰되었기에 기존보다 작은 규모의 구를 새롭게 굴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건물지 상부를 덮고 있는 각종 유기물들이 토층상으로 연결되어 수로에 퇴적되는 양상을 통해 확인된다.

수로의 내부와 건물지 상부에는 인위적으로 절단된 나뭇가지 이외에, 각종 동물의 뼈와 취식된 것으로 보이는 밤껍질, 살구씨, 탈곡된 곡식 등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목간은 이러한 유기물 속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잔존 유기물의 구성은 일종의 생활 쓰레기로 추정되며, 이로 보아 건물지 주변에서 확인된 목간은 당시 건물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함께 수로에 폐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와 인접한 수로에서 확인된 1점의 목간은 주변의 폐기 양상을 확인할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2. 출토 목간 소개

목간은 벚나무류, 소나무류, 삼나무류에 속하는 나무를 가공하여 사용하였고, 형태나 판독된 문자 내용을 통해 많은 글자가 씌여진 2점은 문서용 목간이고 나머지 3점은 하찰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목간①>은 날짜(十二月十一日), 금(金), 중량(重)을 뜻하는 글자와 더불어 출납[內], 이동[送: 보내는(送) 혹은 맞이하는(逆)으로 해석], 재고 상황[亡]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자가 확인되어 행정 관부의 출납을 담당하던 관리가 기록한 문서나 장부의 용도로 파악되었다. 또한 세로로 표기한 행간의 빈 공간에 이음표(丶)를 써서 문자를 거꾸로 써내려가는 흥미로운 사서법도 확인하였다.

* 하찰(下札) : 물품(꾸러미)의 꼬리표 목간으로 상단에 끈을 묶을 수 있게 홈이 파여 있거나 구멍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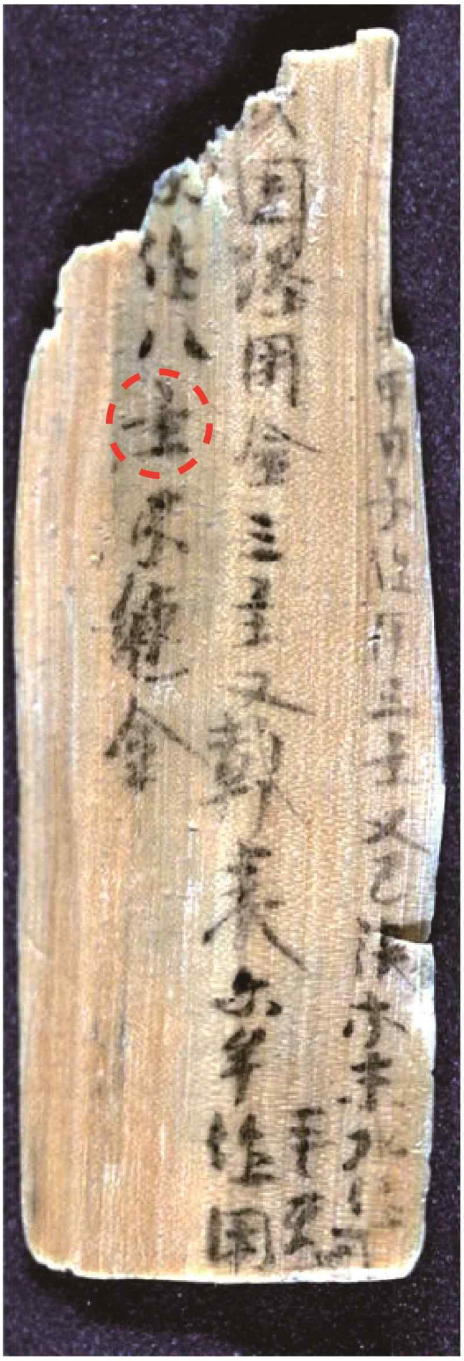
또한 도량형 연구에 있어 백제의 무게단위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단서도 확인하였다. <목간①>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중(重)'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다리작명 은제 팔찌에 새겨진 '주(主)'가 '중(重)'의 이체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체자(異體字) : 한자에서 글자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글자로 취급되는 글자

한편 <목간②>에서는 곡물 중 하나인 피(稗)와 함께 이동[送], 연령 등급(丁), 사람 이름, 용량 단위(斗) 등으로 볼 수 있는 글자가 확인되어 역시 곡물의 출납과 관련된 기록으로 파악되었다. 더욱이 피는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에서도 확인되어 고대 식량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듯 이번에 확인된 새로운 문자자료는 백제 중앙의 행정상 복원과 더불어 도량형을 파악하는 데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 동남리 유적 출토 〈목간①〉(뒷면)



근적외선 초분광촬영본

…	…		
□	□		…
作	因		□
八	涇		甲
重	用		可
不/分	金		子
速/縺	三		作
金	重		用
	又		三
	□		重
	來		又
	尒		已
	牟		涨
	作	重	木
	因	丑	末
			水
			作
			□

3행과 2행의 내용이 연결
2행 회전 표기(해석 역순)

판독결과

(□:미판독, 추정자 표기/◌: 이체자)

도면 5 목간① 뒷면 모습 및 판독글자

부여 동남리 유적 출토 〈목간①〉(앞면)

근적외선 초분광촬영본

…	…			
十	兩		…	
二	子		九	
月	作		重	
十	丶		十	
一	十	重	一	…
日	一	七	月	二
亡	月	兩	八	兩
夫	十	三	日	內
送	一	全	內	已
金	日	送	已	
二	亡	夫	月	
兩	夫	亡	九	
六	送	日	日	
重	金	廿	亡	
月	二	月	夫	
十	兩	已	送	
□丶	且	內	金	
日	丶 빗금	…	五	

회전 표시

5행과 3행의 내용이 연결
3행 회전 표기(해석 역순)

판독결과(□:미판독, 추정자 표기/◌: 이체자)

도면 6 목간① 앞면 모습 및 판독글자

부여 동남리 유적 출토 〈목간②〉(앞면)

근적외선 초분광촬영본

稗
迷/送/逆

凡	凡
□	□
仁	鵲
得	得
丁	丁
五	五
斗	斗

因	凡
□	□
日	毛/宅
苗	若
丁	丁
五	五
斗	斗

판독결과

(□:미판독, 추정자 표기)

도면 7. 목간② 뒷면 모습 및 판독글자

Ⅳ. 맺음말

지금까지 부여 동남리 49-2번지 유적 출토 목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부소산성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이어지는 교통로가 이 유적을 기점으로 두 개의 노선으로 갈라진다는 점이다. 이 도로는 총 6번의 증개측을 거치며 장시간 사용되었다는 점이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도로가 백제왕도 방리의 일부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화지산과 금성산 사이의 고개 남쪽으로는 생활유적의 밀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본 유적이 중심에서 주변으로 변화하는 기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수의 목간이 출토된 Ⅱ문화층의 1·2호 건물지를 화지산 유적과 연관지을 것인지, 아니면 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필요로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설로 판단할 것인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출토된 목간의 판독결과가 출납, 이동, 재고상황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점은 이 건물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굴조사자의 입장에서 목간의 발굴정황과 반독결과가 상호보완적인 입장에서 진전된 논의로 발전하길 기대한다.